

과학관 전시물의 수집과 관리

- 전시와 큐레이터, 변화를 이해하라! -

국립서울과학관 배부영 연구사

과학관(Science Museum)이란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유·무형의 사물(objects)을 수집, 보존 및 관리하고, 전시를 통해 사물을 관람객이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곳이다.

□ 과학관의 임무[역할] _ 전시와 체험(교육), 그리고 연구[대중과 소통의 장]

과학관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는 전시(Exhibitions)이다. 전시는 상설 전시(permanent exhibitions), 특별 전시(temporary exhibitions), 순회 전시(travelling exhibitions) 및 온라인 전시(online exhibitions)로 나눌 수 있다. 전시물(Exhibits)은 전시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item)로 전시는 일련의 전시물의 의미 있는 집합이다. 과학관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시물을 확보하고 전시, 연구교류, 교육 및 학습, 지역사회와 소통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큐레이터(Curator)는 전시물을 수집하고 수집한 전시물을 분석·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전시물을 선택하여 전시하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과학관 직원 중 한 사람으로 전시의 기획,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 운영주체에 따른 과학관

과학관은 운영주체에 따라 기관이 운영하는 과학관(국·시립과학관, 국립과학관, 대학부속과학관 등)과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과학관으로 나눌 수 있다. 기관이 운영하는 과학관의 경우, 과학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후 전시물 수집(구매, 기증, 채집 등)하며, 개관이 후에는 큐레이터를 중심으로 전시물의 수집과 관리가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사립과학관의 경우, 과학관 소유주가 취미로 전시물을 수집한 후 개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소유주는 전문 큐레이터의 임무를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전문 큐레이터의 부재로 장기적 안목에서 전시물의 수집, 관리 및 활용의 다양화가 아쉬운 상황이다.

□ 전시주제에 따른 과학관

과학관은 과학기술 전 분야를 다루는 종합과학관(예, 과천과학관, 중앙과학관), 주제나 대상을 제한 혹은 특화한 전용과학관(예, 인천어린이과학관, 철도박물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목포자연사박물관, 해남공룡박물관, 흥성조류박물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과학관의 짧은 역사에 비해 과학관의 형태는 선진국의 경우와 비슷하다. 단지, 과학관 운영 중 전시분야에서 전문 큐레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전시 및 운영 방안연구, 중장기 전시 및 운영계획의 미흡이 과학관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 과학관의 전시물(Exhibits) _ 전시물의 수집, 관리 및 전시(교육)까지

종합과학관의 대표적 예인 과천과학관의 경우 5개의 상설전시관(기초과학관, 첨단기술관, 어린이탐구체험관, 전통과학관, 자연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상설전시장은 담당 연구사가 전시물의 수집, 관리, 전시 기획 및 운영인력의 중심 역할을 한다. 과천과학관의 경우, 각 상설전시관의 전시물은 원리·놀이체험 위주 전시물(예, 어린이관 물놀이), 복원물(예, 전통과학관 기리고차), 모형물(예, 첨단기술관 국제 우주정거장의 ISS모듈), 과학기술사물(예, 전통과학관 천상열차분야지도), 자연사물(예, 자연사관 공룡화석)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전시물을 도구로 하여 전시 해설사, 체험교실 강사 등이 관람객이 전시를 보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개관 6년차에 접어든 과천과학관의 경우, 상설전시의 경우, 개관당시 인기가 있었던 전시물이 새로운 전시물로 교체되었으며, 지금도 교체 중에 있다. 교체된 전시물 중 일부 전시물은 그 기능이 다하여 불용처리 되고, 일부 전시물은 수장고에 보관되기도 하고, 일부 전시물은 다른 기관(예, 중·고등학교)에 기존의 형식으로 보내지기도 한다. 기획전시의 경우, 전시물은 대부분 일회성이나 최근, 일부 인기 있는 전시물은 상설전시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전시하는 경우도 있다.

□ 소장품(Collections)과 전시(Exhibitions)

다양한 방법으로 과학관에서 수집한 '소장품' 중 일부만이 큐레이터에게 선택되어 거쳐 과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대 시킬 수 있는 '전시 및 교육'을 위해 전시장에 선보인다. 물론 큐레이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장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우선

이다. 새로운 전시를 기획할 때, 과학관이 가지고 있던 소장품이 전시되는 경우도 있으나, 새로운 전시물을 구매, 제작 혹은 기증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든 전시 기획자가 전시물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부족하다면 성공한 전시가 가능할까?

소장품의 관리(collections management and care)

일반적으로 과학관의 소장품은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큐레이터는 수많은 수장품을 어떻게 일일이 기억하고, 새로운 전시를 위해 이들 중 일부를 선택하여 전시를 위해 활용할 수 있을까? 소장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첫걸음, 소장품의 목록화(cataloging)는 큐레이터의 일을 쉽게 도와준다. 목록화된 소장품은 큐레이터에게 전시를 위해 선택되거나, 수장고에 보관되거나, 다양한 목적으로 대여될 수도 있다.

새로운 과학관이 만들어 질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 중 하나가 수장시설(storage housing)이다. 이외에 소장품의 관리공간으로 준비실(연구 및 처리실), 소장품 처리실(표본제작 및 가공), 훈증실 등을 갖춘다. 더불어, 과학관은 재난 시에 소장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긴급관리 시스템(Emergency planning and response)을 운영한다.

소장품의 목록화(Cataloging of objects)

소장품의 목록화는 소장품에 대한 모든 정보의 획득과 데이터화에 제1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소장품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 소장품 동정(object identification)
- 소장품 기재(Object description) : 정석 및 정량적 특징, 수치정보 포함
- 소장품 획득방법(제작, 채집, 기증, 구매 등)
- 획득방법에 따른 제반정보(제작·채집·기증·판매자 정보, 획득일, 획득자, 획득목적 등)
- 수장 위치(관별 혹은 소장품의 특징별 분류)
- 기록자(년월일 포함)

이렇게 소장품에 대한 모든 정보의 획득이 끝나면, 수집한 소장품에 일정한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소장품을 관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과학관마다, 소장품의 종류에 따라 번호 부여 방법은 다를 수 있다.

소장품의 큐레이션(Curation)

소장품의 대여(Loans)





